한국팀 응씨배 탈환, 8부 능선 넘었다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이창호, 조치훈 꺾고 이세돌과 4강 맞대결

최철한도 준결 합류… 중국은 류싱만 남아

한국바둑은 역시 응씨배에 강했다.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이창호·이세돌·최철한 9단 등 한국 기사 3명이 4강에 진출했다.

중국인이 만든 이 대회에서 한국은 제1회 조훈현 9단, 제2회 서봉수 9단, 제3회 유창혁 9단, 제4회 이창호 9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제5회 대회에 와서야 창하오 9단이 첫 우승을 했을 정도로 응씨배에서 바둑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기원은 9일 "중국 상하이 응창기바둑기금회빌딩에서 벌어진 제6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8강전에서 최철한, 이세돌, 이창호가 각각 박문요 5단과 콩지에 7단, 조치훈 9단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창호는 지난 4일 이 대회 8강전에서 일본 대표로 출전한 조치훈 9단에게 195수만에 3집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창호는 조치훈의 관록에 밀려 중반까지 패색이 짙었으나 끝내기에서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세돌도 중국의 콩지에 7단에게 272수만에 11집을 이겼다. 16강전에서 중국의 1인자 구리를 대파하고 8강에 올랐던 최철한도 중국의 퍄오먼야오 5단을 173수만에 불계로 제압하며 준결승전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박영훈 9단은 류징 7단에게 패하며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준결승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로 예상된다.

준결승전은 이창호-이세돌, 최철한-류싱 간의 대결로 펼쳐진다. 한국 3명, 중국 1명의 대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국의 우세가 점쳐진다.

특히 한국랭킹 1-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창호-이세돌의 경기가 결승전 못지 않게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와 이세돌이 대결한 것은 지난해 8월 제26회 바둑왕전 준결승(이창호 불계승) 이래 처음이다.

국제무대에선 2006년 9월 제3회 도요타덴소배 준결승(이세돌 불계승)이 마지막이었다. 통산 상대전적은 이창호가 24승19패로 우세. 하지만 최근에는 이세돌의 기세가 더욱 매섭다.

응씨배는 대만 재벌 고 잉창치(應昌期)씨가 자신의 이름을 따 40만달러(4억8천여만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창설한 첫 세계 기전. 지난 1989년 첫 대회가 열렸고, 올해 6회째다.

이번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30분이며 시간초과시 35분당 2점의 벌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덤은 8점이다. 지금까지 8강 진출자에 주어지던 차기대회 본선 시드는 이번 대회부터 우승, 준우승자에게만 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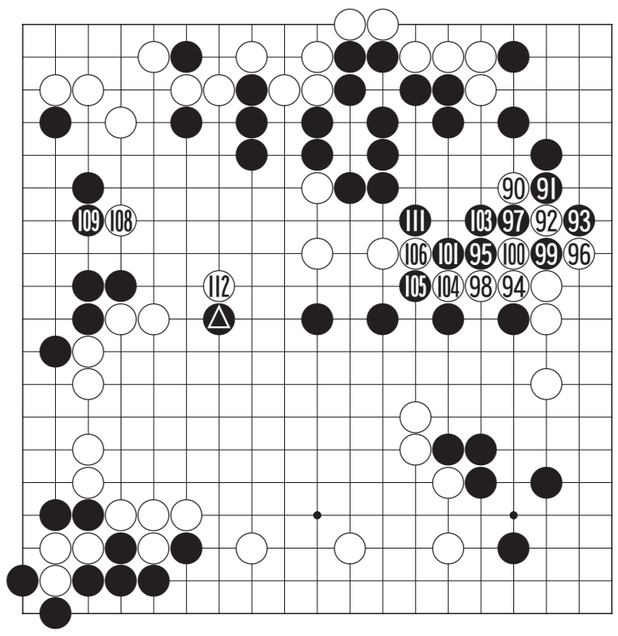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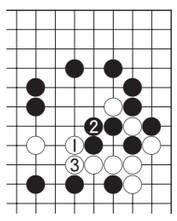
제4회 천남도지사배 천국아마최강전 시니어부 본선 2회전

믿지못할 대 실수

6보(90~112)

白 박성균 7단 (강원)　　黑 심재욱 6단 (광주)




〈참고도〉

흑 ▲가 놓이자 박성균 7단은 후회막급한 표정으로 알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백 90으로 두어 흑의 약점을 건드려 본다.

그러나 한번 기세를 타자 심재욱 6단은 갈수록 매서워진다. 흑 91로 밀고 93으로 젖혀간 것이 양보없는 강수이며 백 94 때 흑 95가 또 좋은 수였다.

이 수가 결정타가 되는가 했으나 백 96으로 막았을 때 흑 97로 단수친 수가 오버페이스로 심한 수였다. 이 수로는 그냥 중앙을 '가'정도에 지켜야 했으며 그랬으면 우세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박성균 7단이 찬스를 만났다는 듯이 98로 밀고나오자 중앙을 막지 못하고 엉겹결에 흑 99로 따내고 본다.

이 수로는 101로 늦추는 것이 정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 7단이 100으로 몰아버린 것이 믿지못할 대실수로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 버렸다.

이 수로는 '참고도'처럼 백 1로 젖혀 이어야 했던 것이다. 111까지 되어서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백 112가 최후의 승부수다.107-99.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1월 랭킹 50위, 2월 69위, 3월76위, 4월 90위…

루이 급추락 … '철녀'의 시대 저무나

'철녀' 루이나이웨이(45) 9단이 최근 5연패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루이나이웨이가 그동안 국내 바둑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지난 1994년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여자세계대회인 제1회 보해배에서 우승한 루이나이웨이는 3회와 4회 대회를 연속 우승하며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5회 대회에 불참했던 루이는 보해배를 이어받아 창설된 흥창배에서 국내파 쌍두마차인 조혜연과 박지은을 차례로 물리치고 1, 2회 대회 우승을 휩쓸었다. 세계대회에 6번 출전해 5번 우승하는 괴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때까지 그는 미국, 혹은 중국 대표로 활약했다. 루이가 객원기사 신분으로 한국에 정착해 국내여류기전에 참가하기 시작한 해는 1999년부터이다. 루이나이웨이는 ▲1999년 제6기 여류국수전 ▲2000년 여류국수전 ▲2001년 여류명인전 ▲2002년여류명인전 ▲2002년 여류국수전 ▲2003년 여류명인전 등 무려 5년간에 걸쳐 국내 여류대회에서 단 한차례도 우승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

제1회 보해배가 창설된 1995년부터 2003년 2월까지 12개 대회에 참가해 11차례 우승을 했다. 우승확률은 무려 97%였다.

하지만 루이나이웨이의 독주는 조혜연의 등장으로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다. 조혜연은 2003년까지 루이나이웨이와 타이틀전 결승에서만 4차례 만나서 모두 패했다. 하지만 수없이 얻어맞으면서 실력을 키워온 조혜연은 2003년 11월 제9기 여류국수전에서 처음으로 루이나이웨이의 벽을 넘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조혜연은 루이나이웨이를 스승으로 삼아 실력을 키워왔던 것이다.

자신감이 붙은 조혜연은 2004년 1월에 제5기 여류명인전에서 다시 한번 루이나이웨이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5연패로 인해 루이나이웨이는 랭킹에서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8월 20위권을 유지해 온 루이나이웨이는 지난해 9월부터 30위대로 떨어진 후 올해 들어서면서 수직 추락하고 있다.

1월에 50위, 2월 69위, 3월 76위, 4월에는 90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한국리그 본선 시드가 주어지는 28위 내에 있었지만 올해는 부진으로 랭킹이 떨어져 리그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박영훈 기성전 방어 성공 박영훈(오른쪽) 9단이 지난 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19기 현대자동차배 기성전 최종국에서 도전자 백홍석 6단을 상대로 172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박영훈은 종합 전적 2-1로 기성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사이버 오로 제공〉

목진석 등 4명 중국리그 진출

한국의 목진석·원성진 9단, 윤준상 7단, 김지석 4단이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게 됐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중국 을조리그에 용병으로 출전하게 된 것. 을조리그는 일종의 2부 리그이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중국 갑조리그에서 11, 12위를 차지한 두 개 팀과 을조 리그 3위~11위팀, 병조 리그에서 을조 리그로 올라온 1, 2, 3위 팀 등 총 14개 팀이 참가한다.

총 7라운드를 통해서 상위 1, 2위 팀만이 2009 중국 갑조 리그에 진출하게 되고, 12, 13, 14위 팀은 병조 리그로 떨어지게 된다.

이들은 1국을 이기면 4만위엔(한화 약 500만원)을 받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영구, 윤찬희 꺾고 물가정보배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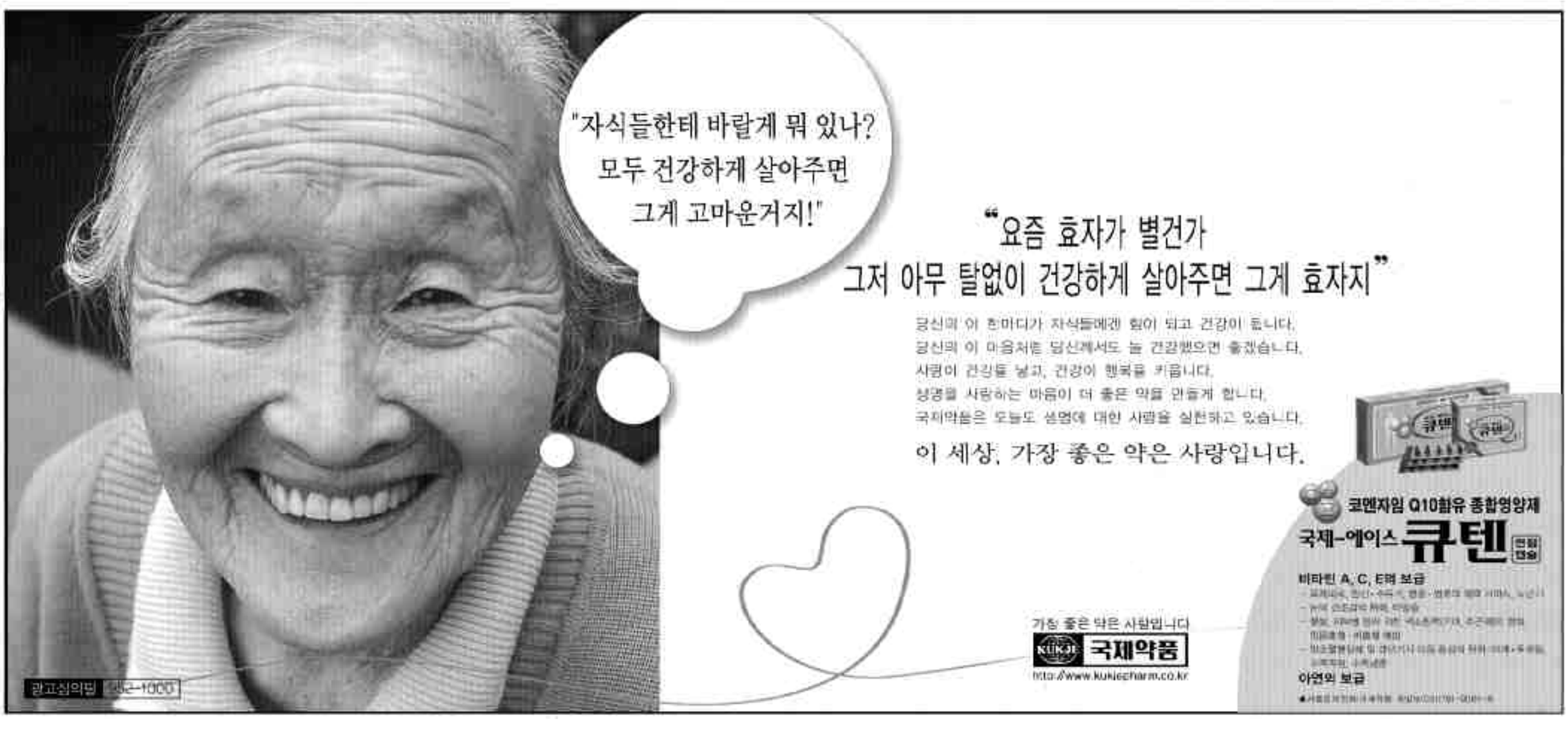
이영구 7단이 제4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영구는 지난 6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이 대회 본선 D조 리그에서 윤찬희 2단을 155수만에 불계로 꺾고 첫 승을 올렸다.

최근 다소 침체기에 접어든 이영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부활을 노리고 있다.

한국기원 랭킹 순위에 따라 대진을 짠 본선 리그전은 총 16명의 기사가 4개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진행한 뒤 각 조 1, 2위가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

최종 결승 진출자 2명을 가린 뒤, 결승 3번기를 통해 우승자를 정한다.

제한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3회.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